

뉴스룸 | 최신기사

투자.상업은행 '장벽외해' 두고 논란 분분

송고시간 | 2008-09-24 15:53



김용래 기자

기자 페이지

<투자.상업은행 '장벽외해' 두고 논란 분분>골드만.모건스탠리 지주회사 전환 '은행랭킹 재판'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최근 은행지주회사로 기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간 장벽이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두 은행업종의 분리 움직임이 현 금융위기에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두 회사의 기업구조변경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가로막는 장벽이 10여년에 걸쳐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금융권과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장벽 외해가 현 금융위기에 호재 혹은 악재로 작용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몇몇 정치가와 은행가들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벽을 허문 그램-리차-블릴리 법과 다른 규제완화 제안이 현재의 혼란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규제완화로 인해 시티그룹과 같은 대형은행들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재포장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기면서 금융위기가 촉발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의 바이런 도건 상원의원(노스다코타)은 "금융 현대화라는 미명 아래 금융기관들이 다른 금융기관들과 합쳐지면서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위험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베어스턴스나 리먼브러더스가 상당 규모의 예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 지난해 신용경색이 심각해졌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 하원의원 제임스 리치는 "(1933년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명확히 구분한) 글래스-스티걸 법을 개혁하지 않았다면 JP모건체이스가 베어스턴스를,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메릴린치를 구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황기에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합병은 거대한 금융 공룡을 탄생시켜 전체 금융시스템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등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은행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기로 한 것이 미국 은행들의 순위를 뒤엎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자사의 최근 데이터를 인용, 최근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자산규모 면에서 와코비아와 웰스파고 은행을 앞질렀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1조8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2조1천억 달러의 시티그룹과 1조8천800억달러의 뱅크오브아메리카, 1조7천800억달러의 JP모건체이스의 뒤를 이어 자산보유 총액 4위를 차지했다.

모건스탠리는 9천8백88억 달러로 5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와코비아가 8천124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어 다 귀환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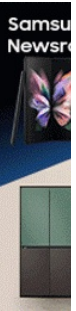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권익...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볼스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한편 시가총액 측면에서 골드만삭스는 497억달러로 6위를 기록했고, 모건스탠리가 294억달러로 8위를 차지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1천529억달러로 미국 금융회사 가운데 최대 시가 총액을 기록했으며 이어 JP모건체이스가 1천 398억달러, 웰스파고가 1천168억달러로 나타났다.

yongl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9/24 15:53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뿔뿔뿔...누가 학대했니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 정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크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모임·영업·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마스크는 '유자'

검수완박에 청문정국 '한동훈 블랙홀'까지...여야 끝장대치 예고

1년5개월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검수완박 대응' 논의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4%대 인플레 '불 끄기'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32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59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1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할 등재개 예열?
41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4

뭐하고 놀까? #홍→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총

개인사/제휴문의